

엘리아의 기도 (왕상 18:30-38)

- 30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수축하되
- 31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아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 32 그가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아를 돌 만한 도랑을 만들고
- 33 또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 34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 35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 36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 38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

본문에 보면,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임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그때에 엘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33-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 33 또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 34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 35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질문1) 엘리아가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질문2) 이러한 엘리아의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엘리아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기도이다

참고) 전설에 의하면 오랜 세월 충성을 다한 장군이 알렉산더대왕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결혼식 비용을 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충성한 것을 생각하여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재무 관리에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재무관리가 놀란 얼굴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헬라 역사상 유례없는 큰 결혼식 비용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한 후, 원하는대로 주라고 하면서 그 장군에게는 두 가지 칭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장군은 내가 그만한 돈을 줄 만큼 부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가 그만한 돈을 줄 만큼 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질문3) 대담한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골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 ②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③ (시81: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 ④ (수10:12)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렇게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려면 기억할 것이 있다

-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라”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나눔 질문)

1. 다음에 주어진 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미국 어떤 대학 물리학교수가 새 학기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겠다.” 그리고 분필을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은 내가 이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로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떨어뜨렸고 그것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학기 내내 교수는 그렇게 했고, 마지막 수업시간이 왔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납득이 되었습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위대하다는 낡아빠진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는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학기 내내 기도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기도를 부탁해 두었습니다. 교수는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내가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릴 때, 자네의 기도로 분필이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는 큰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오늘은 부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수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보스러운 짓을 그만두게.” 비난을 퍼부으며, 손을 떼어 분필을 위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필이 교수의 양복바지 접어올린 단 위에 떨어지더니, 신발 위로 떨어졌다가, 바닥 위로 굴러 내렸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습니. 강의실에는 폭소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그 그리스도인 학생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2.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응답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보십시오.